

'치킨의 세계화' 윤흥근, 치킨대학 교육으로 차별화

〈제너시스BBQ 대표이사 회장〉

BBQ치킨은 교촌치킨, BHC치킨에 이어 국내 치킨업계 3위 업체로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 등 해외에도 진출해 57개국, 500여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특히 2006년 진출한 미국에서 성장세가 가파르다. 미국에 진출한 국내 프랜차이즈 중 가장 많은 매장수인 150여개로 매출은 2019년 2800만달러에서 지난해 7300만달러로 상승했다. '황금 올리브 치킨' 등 주요 메뉴들이 많이 팔렸다.

올해 6월에는 글로벌 외식 전문지인 네이션스 레스토랑 뉴스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외식 브랜드' 2위에 오르며 현지 반응도 좋다.

제너시스그룹의 치킨사업 핵심 계열사인 제너시스BBQ를 이끄는 윤흥근 회장은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났다. 순천중앙초·순천중·순천고를 나와 조선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사장교 1기로



GNS주책전사(단독주택)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육군 중위로 전역했다.

어린 시절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고 3 때 부친의 사망으로 가세가 기울어졌다. 가장으로서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닭고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1984년 미원그룹(현 대상그룹)에 입사해 1990년 이천사료공장 총무과장, 1994년 닭고기를 유통하는 미원 자회사 마니커 영업부장 등을 지냈다.

육계 관련 지식을 쌓아 40대 초에 회사

를 그만두고 1995년 9월 제너시스BBQ를 창업해 'BBQ치킨' 브랜드를 내놨다.

다른 프랜차이즈들과 차별화를 위해 국내산 냉장 닭만 고집하는 등 품질 경영을 통해 1995년 11월 1호점을 연 지 6개월 만에 100호점을 열었다. 1999년 11월에는 1000호점을 돌파하며 짧은 기간에 대기록을 세웠다. '하면 된다'라는 확신으로 동네 구멍가게처럼 여겨지던 치킨장사를 프랜차이즈화해 인식을 바꿨다.

프랜차이즈 성공신화를 이루며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도 기지를 발휘했다. 가게가 망할까 봐 전전긍긍하던 가맹점주들에게 위기 돌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며 먼저 손을 내밀었다. 본사와 가맹주의 신뢰 관계를 앞세워 위기를 성장의 발판으로 전환했다.

또한 '프랜차이즈 산업은 곧 교육산업'이라는 철학으로 2000년 맥도날드의 햄버거 대학을 벤치마킹해 2003년 치킨대학을

설립했다. 경기 이천시에 있는 치킨대학은 예비 가맹점주들과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교육생들은 조리 방법뿐만 아니라 매장 운영에 필요한 회계·마케팅 등을 배운다. 기초교육과정과 이론·실습을 받은 뒤 수료증을 받아야 BBQ 매장을 운영하는 권한을 준다.

치킨대학의 철저한 교육 시스템은 교육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로 지정됐다.

이 같은 과정은 전 세계 BBQ 어느 지점에서든 고객이 같은 서비스, 맛, 품질을 경험하는 표준화를 정립했다.

중심에는 치킨대학 산하 '세계식문화과학기술원'이 있다. 최근 BBQ는 미국에서 '네이션스 레스토랑 뉴스' 'FOX뉴스', '음식전문지' 'Mashed', 레스토랑 전문지 'QSR(Quick Service Restaurant)' 등에서 K-치킨의 대표 브랜드로 소개됐다.

GENESIS BBQ

윤흥근
현)제너시스BBQ 대표이사 회장
1985~2022.8 제너시스BBQ 대표이사
2000~한국소매업협회 부회장
2002~2005 제2대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회장
2002.9~제너시스BBQ 회장
2011.2~한국외식산업협회 상임회장
2020.12~제33대 대한방상경기연맹 회장
2022.1~제12대 김상욱의사기념사업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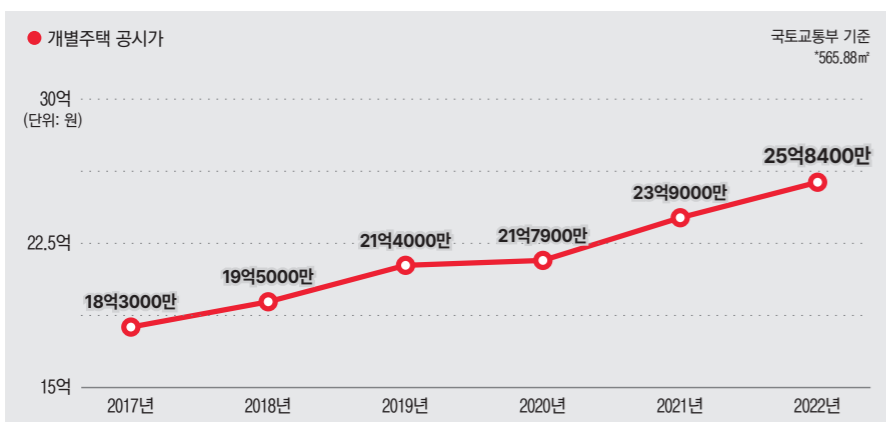
뉴스시스

이는 BBQ가 세계식문화과학기술원의 국가별 식문화 연구로 철저하게 현지화된 전략으로 K-치킨 세계화의 교두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이다. 한편 2025년까지 전 세계에 5만개 BBQ

치킨 가맹점 개설을 목표로 내건 윤 회장은 9월1일 지주사 제너시스 대표에서 물러나 이사회 의장으로서 해외 시장 개척사 회 공헌·스포츠 지원 등 ESG 경영에 전념하고 있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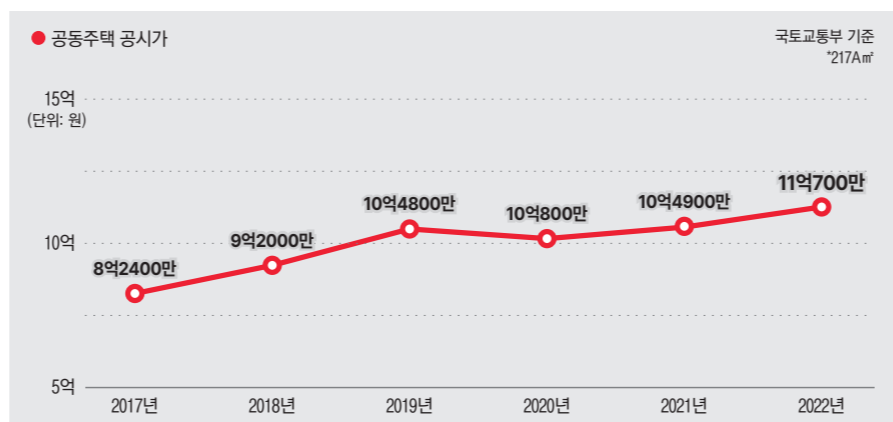
베스트하우스(단독주택)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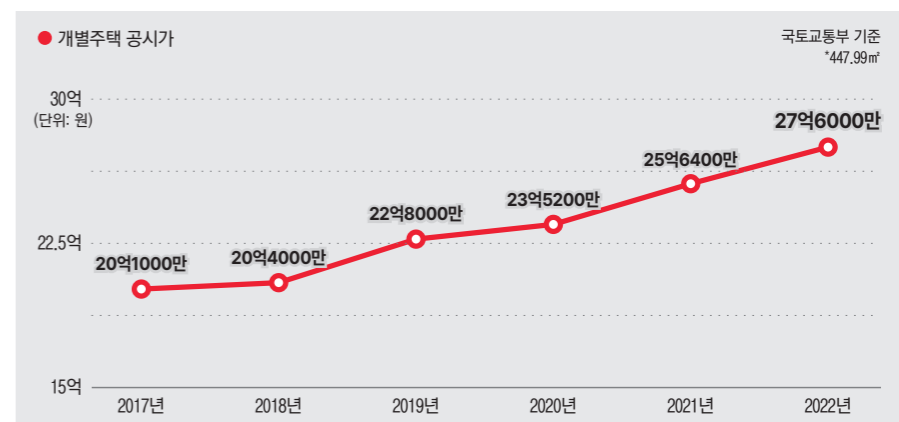
코오롱인더스트리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320



베스트하우스(단독주택)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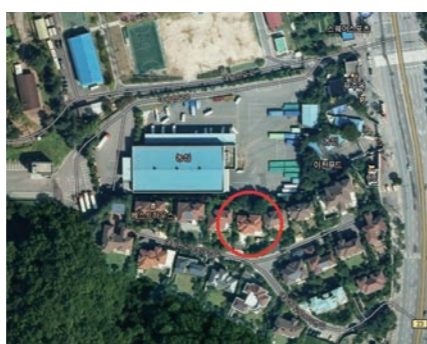


유창수

현)벡트 대표이사



이택은 사명을 '벡트'로 변경했다. 디지털 사이니지, LED전광판, 전자철판, 전자교탁 등 제조와 유통 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접목시켜 미디어아트와 전시기획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아아트와 전시기획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유창수 벡트 대표이사는 미국 옥시덴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귀국해 병역 의무를 마치고 연세대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받았다. 2002년 LG전자 입사해 기술전략부 수출팀에서 3년간 중동과 아프리카를 담당했다.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를 옮겨 1년간 일하다 2006년 프로젝트 전자철판 등을 유통 생산하는 유환아이텍을 창업했다. 2007년 한나라당 17대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 외교안보특별위원에 임명돼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2016년 8월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청년최고위원에 당선됐다. 9월1일 유환아

조덕상

현)아구스 대표이사 사장



조덕상 아구스 대표이사 사장은 연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다. 현대전자(현 하이닉스반도체) 연구원으로 입사해 자동차 레이저 충돌방지장치 개발팀에 합류해 차량영상 경보장치, 운전자 감시장치, 무인자동차 기술 등을 연구했다. 1994년 현대차에서 사내 해외연수로 미국 카네기멜론대에서 영상인식 분야를 다녔다. 이때 영상기술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하다는 점을 깨닫고 창업의 꿈을 품었다. 사업 아이템을 찾던 중 당시 수요가 급증하던 무인 보안시스템의 시장 잠재력을 보고 2001년 보안시스템 전문기업 아구스를 설립했다. 창립 후 스탠드 얼



리(Stand-alone) DVR을 내놓아 시장의 주도권 변화를 정확히 예측했다. 조 대표는 2007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에서 기술혁신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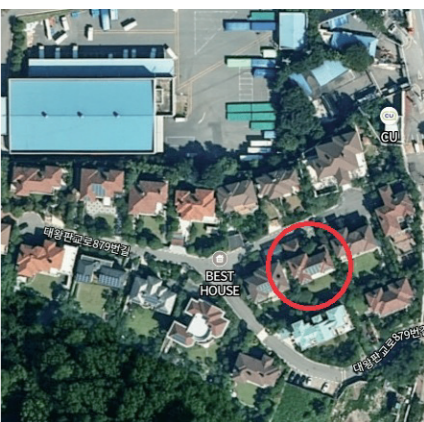
연정훈

현)텔런트



합류해 뛰어난 활약으로 2020년 KBS 연예대상에서 쇼-버라이어티 부문 베스트 엔터테이너상을 받았다.

연정훈은 1999년 SBS 드라마 '파도'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두 남자 이야기' '노란 손수건' '흥부네 박 터졌네' '로즈마리' '사랑을 할까야' '슬픈연가' '제중원' '가만' '금 나와라 뚝딱' '육사남정기'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내 사랑 치유기' '빙의' 등과 영화 '키다리아저씨' '연애술사' '좋은 친구들' 등에 출연했다. 2003년 방영된 KBS1 드라마 '노란 손수건'에 함께 출연한 한가인과 2005년 4월 결혼해 화제가 됐다. 가수로 활동영역을 넓혀 2005년 첫 정규 앨범 'All for you', 2013년 싱글 'Yeon Jeong Hoon'을 발매했다. 또한 2019년 12월, KBS 예능 '1박 2일' 시즌4의 고정 멤버로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도. 상주시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시

경기도 군포시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군포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리모델링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담은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8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의무 대상이 아니라 1기 신도시의 위상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수요에 부응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고시했다.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2025년 기준 준공 후 15년이 도래해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가능한 128개 단지(약 5만9000가구) 중 현재까지 리모델링 주택조항 설립인가가 완료돼 목표연도까지 현실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예상되는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가구수 증가 가능량은 1187가구로 추산했으며 주변 기반시설(상·하수, 공원, 교육, 교통)의 영향은 문제가 없거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착공

강원도 속초·춘천시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노선도.

속초시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 철도 착공식이 18일 속초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국회·지자체·지역단체 관계자 450명과 주민 1550명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사업은 93.7km 구간을 단선으로 건설하며 설계속도는 250km/h이다.

기간은 2027년까지 국비 2조4377억원이 투입된다.

춘천-속초 노선은 춘천-화천-양구-인제-백담-속초를 종착역으로 동해선과 연결되며 차량은 KTX-이음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속초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노후동 및 조양동 일원에 5100억원을 투입해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철도역사와 대중교통 연결성 강화를 위한 환승체계 및 시설 구축, 지역의 특화·전략산업 및 업무, 관광, 교육 등이 결합된 복합 구역 개발, 공동주택과 생

활인프라 구축 및 여가·문화·상업시설을 확충한다.

아울러 역세권을 통해 북부 관광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 유치해 지역 경제활성화와 촉매제로 활용될 계획이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상주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

경상북도 상주시

상주시는 현신동 일원에 조성 중인 상주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한다고 18일 밝혔다.

산업시설용지는 30필지 23만8032㎡(약 7만2000평) 규모로 평균 분양가는 1평당 37만원이다.

분양단가 산정시 평면부와 사면부 면적과 단가를 각각 산정했으며 사면부 단가를 평면부의 30%를 적용해 필지별 분양

가를 차등 적용했다. 주요 유치업종은 식료품·음료·금속가공·제품·전기장비·타기계 및 장비·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다.

분양 대금은 10%의 계약금과 3개월마다 1차중도금(30%), 2차중도금(30%)을 내면 된다. 잔금(30%)은 산업단지 준공 후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분양받은 용지는 1차 중도금까지 납부하면 시가 토지사용을 승낙해 사용할 수 있다. 상주일반산업단지지는 1km 거리에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IC가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현재 공정률 70%로 내년 4월 준공할 예정이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도. 상주시